| 현불 논단 |

우리 모두가 경전이다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만해, 애국지사 · 선사이자 시인
6월 29일은 만해 선사의 열반일
이를 맞아 선사 숨은 공적 소개

만해가 1917년 번역 〈채근담〉엔
한국 선가 전승된 특이한 시 수록
백파 〈작법귀감〉에 같은 시 담겨

이 시를 읽은 성철 스님 출가 결심
훗날 "붓다의 상태 노래한다" 평해

6월 29일은 만해 한용운 선사 열반일이다. 만해는 조선왕조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897년 8월 29일에 태어났고, 광복 직전인 1944년 6월 29일에 입적했다. 인생 전체가 암울한 시대와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만해는 나라걱정과 함께 불교 집안을 좋게 만들려 평생 애썼다. 그는 화엄학을 비롯한 불교 교학에 밝은 선지식인 동시에 깨달음을 경험한 선사이자 독립정신에 투철한 애국지사였으며, 아름답고 애절한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했다. 만해의 공적과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또 커서 세월이 갈수록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은 선사의 열반일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숨은 공적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만해는 한문에 밝았다. 아홉 살 때 천체 운행에 관한 정교한 숫자 배열이 한참이나 이어지는 〈서경〉의 '기삼백' 부분을 줄줄 외웠다. 암기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세상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덕분이었다. 불문에 출가해서는 각종 한적들을 수월하게 읽고 묘리를 빨리 터득했다.

그는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개념을 한국불교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획자이며 본인 스스로 불교경전의 요체를 정리하여 〈불교대전(1914)〉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편집자이기도 했다. 또한 명나라 홍자성의 〈채근담〉에 풍부한 주석을 달아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정선강의채근담(1917)〉이다. 이 안에, 한국 선가에 오래 이어져 오는 특이한 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이 시를 읽은 한 청년이 가슴에서 호기심이 일어 대자유와 영원의 기미를 알아차리더니 후일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가 바로 퇴옹성철이다.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펼쳐보니 글자도 하나 없는데 늘 밝은 빛을 뿜어낸다네.(我有一拳經 不因紙墨成 展開無一字 常放大光明)"

이 시는 20세기에 와서 일반대중에게 처음 소개되는 우리 불교시문학사의 명편이다. 만해가 이 시의 저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찾아보니 불교의례집인 〈작법귀감(1826)〉 속에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대목에서 진설되는 진혼게송이었다. 즉 귀신 제도를 위한 시인 셈인데, '이 경전의 묘리를 알면 좋지만 그리 못하면 〈묘법연화경〉을 들려주겠다' 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종보다는 선종의 입장을 강화한 경우라 하겠다.

〈작법귀감〉의 찬술자는 백파긍선이다. 백파 스님 역시 화엄학에 밝았고 선에도 높은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이 게송이 백파의 창작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작법귀감〉이 불교집안에 오래 전해오는 의례들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보니 서산대사가 지은 〈운수단(1588)〉 안에서 이 게송이 똑같이 발견되었다. 여러 면모를 보아 이 게송은 서산대사인 청허휴정의 창작으로 짐작된다. 〈운수단〉 역시 불교헌공의례집이므로 〈작법귀감〉과 성격이 같다. 그러니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식에 사용되던 불교집안 내부의 진혼게송이 몇 백 년을 흘러 내려와서 젊은 청년을 수도승으로 이끌어낸 '출가 권유의 시' 가 된 셈이다.

만해 선사가 이 시를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불교사는 퇴옹성철을 배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명품 시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부처님 진리를 전한 만해의 공적이 어찌 크지 않으랴. 성철스님은 후일 자신의 젊은 날을 회고하며 이 시가 바로 '붓다의 상태' 를 노래한다고 했다. '상방대광명' 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글자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내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깨침 상태의 에너지 현상' 이 아니겠는가. 서산대사의 진혼게송이 어찌 귀신에게만 효험이 있겠는가. 성철 스님은 이렇게 바꾸어서 읽는다. '우리 모두가 경전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정성이 곧 성공 비결

정성(精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다 바쳐서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성에는 진실한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감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인(茶人)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일이 있습니다. 이 집의 거실에는 한글로 '정성' 이라고 써진 액자가 걸려 있더군요. 가훈으로 삼은 이유를 물었지요. 주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스럽게 하고나면 성취감은 더 커져요.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라도 정성을 다해 하자는 뜻으로 가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 몸과 온 정신으로 한 가지 일에 몰두 할 때 진실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정성이 없다는 말은 전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림 · 최주현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 썰렁썰렁 하는 가하면 어떤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자신의 값어치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씨앗은 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마침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정성은 곧 정진이요, 추진력입니다. 음식 만드는 데, 옷을 만드는 데, 교육하는 데, 사업하는 데, 환자를 돌보는 데 정성의 에너지를 올곧게 쓴다면 모든 것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정성의 힘이 이렇게 위대함에도 정성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심전력으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몰입하다보면 희열과 함께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이런 순간을 경험한다면 행복의 수치는 높아집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점점 큰일을 맡게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게 되고, 당연히 나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조계종 여성신도 전국조직화 기대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6월 23일 창립됐다.

조계종 사상 첫 중앙신도회장을 두차례 역임한 김의정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임명하고,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인 초격 스님 등 스님들을 대거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여성신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조직이 꾸려지는 점에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잇다.

그동안 종단은 여성포교의 입장에서 여러 단체들을 설립했지만 전국조직화에는 실패했다. 중앙신도회 조차 전국교구신도회 구성이 2021년에서야 완비된 상황이었다. 일부 엘리트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 불교 내 여성불자들의 역할은 공양간부터 사찰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일부 여성에 대한 조직화만은 아닐 것이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에서 기대가 되는 점은 각 지역별 대표와 지도법사가 위촉됐다는 점이다.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함께 사찰순례를 비롯해 지역봉사 등 대사회활동으로 여성불자들의 지평을 넓혀주길 바란다.

이러한 설립 취지가 김의정 초대회장 취임일성에서도 드러난다. 전국에서 신심에 기반해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길 기원한다. 이와 함께 여성불자 중 사회적 위상이 높은 이들도 전국여성불자회에 합류하여 더 큰 원동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시대는 여성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불교도 마찬가지다.

유구한 역사 속에 우리 불교를 지탱해 온 여성불자들의 힘으로 날로 쇠퇴해가는 불교 교세를 확장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고대한다.

명상엑스포, 바른 수행 전하는 계기로

지난 6월 17~19일 동국대 일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바로 서울국제명상엑스포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을 찾았다.

2박 3일 간의 프로그램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명상과 과학의 학제간 연구 현황을 살필 수 있었던 컨퍼런스였다. 무엇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하버드 의대 IMP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세계 석학들의 강연들이 이어졌다.

영상콘텐츠와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중들이 명상을 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세대 · 직업 · 상황별 응용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도 의미가 크다. 급부상하고 있는 명상산업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관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맥마인드풀니스(McMindfulness)' 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를 기반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자비심이나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의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현대 마음챙김에 대한 비판이다.

불교의 명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을 기반한다. 이는 '지혜를 구해 중생을 구제하겠다' 는 대승불교 정신의 요체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자본주의 명상상품' 과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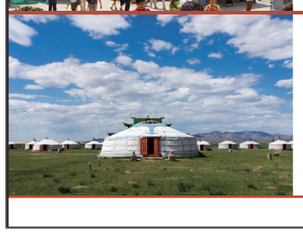
명상 범람 시대에 올바른 명상을 세상에 전할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다. 동국대의 국제명상엑스포가 바른 명상 수행법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명상은 대중화와 세계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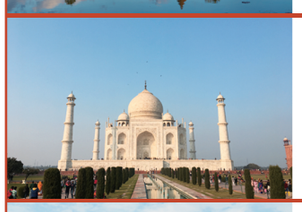
22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함께하니좋다
단체 및 개인 상담문의 02-365-7747
모두가 기다린 성지순례,
다시 함께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일정 등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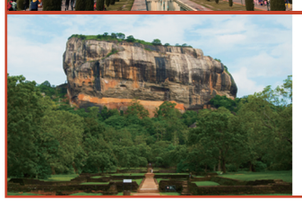

라오스 6일
#핵심코스로 즐기는
#라오스의 과거와 미래


방콕/파타야 5일/6일
#화려한 랜드마크
#천혜의 자연환경


몽골/바이칼 8일
#드넓은 푸른 초원
#시베리아의 푸른 눈


캄보디아 5일
#세계문화유산
#천년의 신비


인도 9일
#상상보다 더 놀라운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8일
#신성한 유적지
#반짝이는 인도양의 나라


하와이 7일
#황금빛 태양 아래
#편안한 휴식


터키 9일
#동서양의 교착지
#찬란한 역사의 땅


이탈리아 9일
#유구한 문화유산
#반짝이는 지중해